

‘MSX의 모든 것’의 심규석

“프로그래밍은 내 인생의 모든 것”

1985년 ‘MSX의 모든 것’이란 특집 기사로 당시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심규석 교수. 마소 독자들 중에는 아직도 그가 전해 준 생생한 감동을 추억하는 이들이 많다. 지식의 갈증을 경험한 심 교수는 국내 소프트웨어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국 유학길에 올라 다양한 경험을 거친 후 지금은 국제적인 과학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후진 양성에 정열을 쏟고 있다.

취재 | 박은정 기자 | whoami@korea.cnet.com
사진 | 김성아 기자 | ksa@korea.cnet.com



심 규석 교수가 대학생이던 시절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던 삼성과 금성(LG의 전신)조차 자체 기술력이 없어서 일본의 NEC에 설계를 의뢰해서 8비트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어 팔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일본으로부터 전수받지 못하여 그 컴퓨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에 컴퓨터 관련 인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라서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설계하고 국내에서도 판매하기 시작한 MSX라는 표준 기종에 장착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베이직 언어의 인터프리터를 분석한 심 교수의 ‘MSX의 모든 것’이란 기사는 컴퓨터 마니아들에게 ‘축복’과도 같았다. 이 기사들은 퍼스널 컴퓨터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자세히 전해줬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시스템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심 교수는 2년 여 동안 MSX 기종에서 쓸 수 있는 컴파일러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발표된 MSX용 책들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번역하기도 했다.

‘MSX’의 모든 것을 파헤치다

심 교수가 80년대에 마소와 인연을 맺었을 때에는 국내에 전산학과가 막 태동되던 시기여서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교수를 찾기가 무척 힘든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 전산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퍼스널 컴퓨터나 유닉스 같은 환경이 생소했으며 또한 큰 프로젝트를 코딩하기에 필요한 노하우나 능력을 갖춘 프로그래머들을 찾기가 아주 힘든 때였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전산과를 나온 사람들보다는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혼자 이것저것 분석해 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코딩도 잘하고 더 능력 있는 프로그래머일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심 교수처럼 전기전자분야를 공부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산과 출신보다 퍼스널 컴퓨터 환경에서 종종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곤 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컴퓨터 하드웨어나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국내에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컴퓨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심 교수의 주요 관심사도 그런 내용들이었고, 마소에 실은 기사들은 그런 관심의 표출이었던 것이다. MSX 컴퓨터의 ROM에 들어 있는 기계어 코드들을 역 어셈블해서

분석하고 또 예제를 일일이 돌려 보면서 밤을 지새울 때도 많았지만 그 작업들은 초기 컴퓨터 마니아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고, 새로운 마니아들을 탄생시키기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기초가 서야 산업이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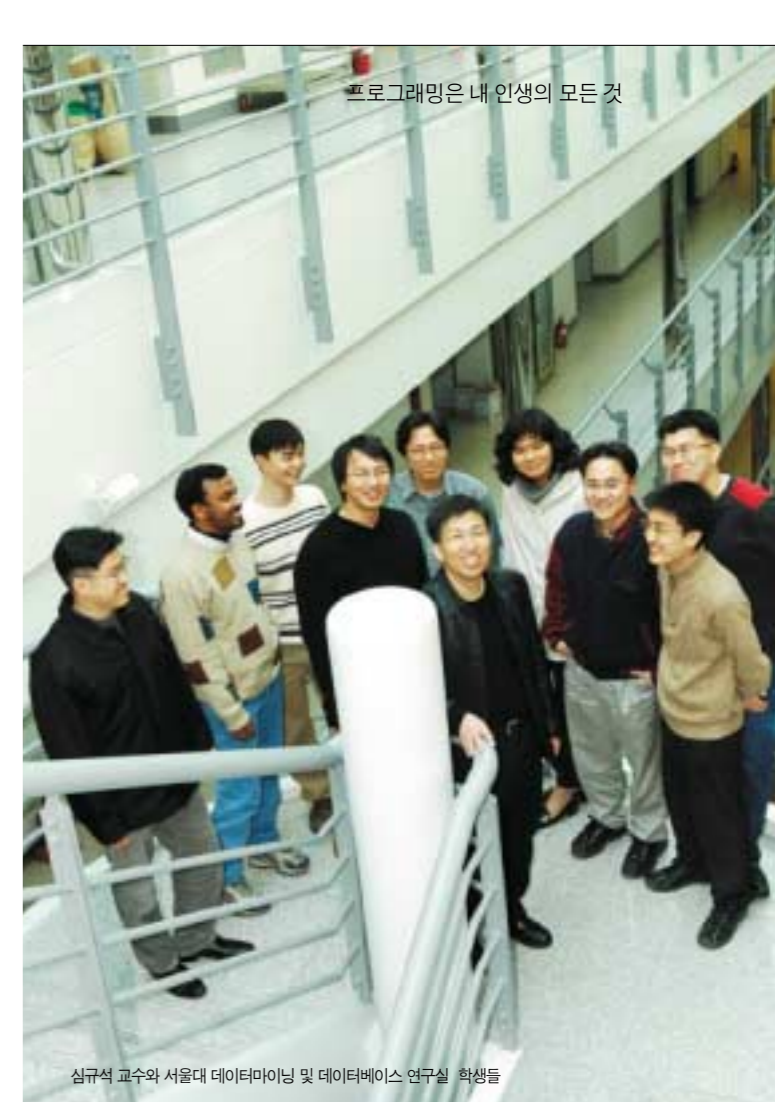
심 교수는 그 해에 과기처 주관 퍼스널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공모와 경시 두 부문에서 장관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해에 유학길에 올라서 데이터베이스 분야를 공부했다. 소프트웨어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IBM, HP, AT&T, 마이크로소프트, 벨 등의 부설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소프트웨어로 미국 특허를 10여 건 받았고 수십 편의 논문을 저명한 국제 저널과 학술 회의에 발표했으며, 그의 논문들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마이닝 분야의 미국 대학 교재에 여러 편 소개되었다.

이러한 시기를 통해 심 교수가 배운 것은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기초가 중요한데 수학이나 알고리즘과 같은 튼튼한 컴퓨터 이론에 대한 지식은 물론 전산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가 14년 간의 외국 생활을 청산한 것도 국내 컴퓨터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픈 바람에서였다.

이런 연유로 심 교수에게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은 더욱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직종들은 ‘돈의 흐름’을 가능케 하는 것일 뿐 산업을 만드는 원동력은 기초 학문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가. 심 교수는 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튼튼한 기초에 있으며, 기초 학문에 대한 교육과 투자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아름다운 프로그래밍 전도사

심 교수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무척 소중히 여긴다. 삶의 중반을 넘기고 보니 비록 작은 인연일지라도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심 교수한테 학생들은 각별한 ‘기쁨’을 주는 존재이다(그는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 공학부에 재직중이며, 데이터마이닝 및 데이터베이스 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심 교수는 프로그래밍은 물론 수학, 문제 풀이 및 증명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학생들과 많은 토론을 벌이고 과제를 내주기도 한다.



프로그래밍은 내 인생의 모든 것

심규석 교수와 서울대 데이터마이닝 및 데이터베이스 연구실 학생들

때문에 가끔 심 교수는 학생들을 너무 괴롭히는(?) 교수가 아닐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도 해보지만 별로 괴롭힘 당하는 건 아니다. 학생들이 가능한 많은 것을 배워 나가고 열정을 갖는 기회가 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랴.

그에게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지표가 되는 글이 있는데, 항상 자신이 결정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의 뜻을 기다리는 ‘진인사 대천명’ 이란다. 히말라야에 오르려고 하면 당연히 오르다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다. ‘Life is full of Serendipity’ 을 항상 가슴 깊이 간직하며, 프로그래밍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심 교수의 소망은 학생들에게 처음 컴퓨터를 알게 되었을 때의 감동과 프로그래밍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 학생들과 ‘좋은 논문’을 써서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다. 심 교수가 ‘바이오와 의료정보’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도 그것이 인류를 위해 많은 유익한 일을 할 거란 판단에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 교수는 앞으로 남은 인생에는 어떤 숨겨진 값진 보물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진다. 